

2010 새해에는

조너하 포스코 광양제철 소장

“녹색성장 주도로 지역경제 살찌울 것”

“2011년까지 단일 제철소는 세계 최초로 2천300만톤 생산 체제 완성..."/>

원 자전거타기 운동 등을 실천하고 자전거도로 등 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동참할 뜻을 내비쳤다.

또 올 하반기 준공될 후관공장과 5소결공장 등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과 환경개선 활동을 지속해 지역민이 모두가 공감하는 ‘그린 앤 클린(Green & Clean)’ 제철소 만들기에도 적극 나선다.

조 소장은 “상호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사문화와 지역 사회내 나눔과 상생의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겠다”면서 “주는 개념보다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개념으로 전환키 위해 포스코 패밀리와 함께 지역민 유대를 강화해 사랑받고 존경받는 지역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2천300만톤 생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철광석과 석탄 등의 원료를 반입할 6선석 부두 건설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지역사회의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조 소장은 1977년 포스코에 입사한 후, 광양제철소 냉연부장을 거쳐 압연담당 부소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광양제철소를 ‘세계 최고의 자동차강판 전문제철소’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21세기 경영인클럽’이 주관하는 ‘제24회 21세기 대상’에서 생산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김형수기자 py4079@

‘그린 & 클린 제철소’ 구축

내년까지 2,300만톤 생산체제

라며 이같이 새해 구상을 밝혔다.

광양제철소는 지난해 6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Dream Together, Dream Works’로 설정하고 ▲고객지향 경영 ▲혁신인재 육성 ▲세계 최대 강재 전문제철 구현 ▲신뢰·배려·열린 문화조성을 기치로 환경경영과 상생경영에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 철강 기업의 위상에 걸맞게 품질경영을 강화하고 자동차강판의 생산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신제품 개발에도 심혈을 쏟고 있다.

조 소장은 특히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해 사회적 기업 출범, 미소금융 개소, 포스코 봉사

단 활성화, 지역민에 기업혁신 노하우 전수,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광양을 ‘글로벌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이산화탄소 저감과 내복입기, 전 직

신협 광주전남지부 공제사업 3년째 전국 1위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부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2009년 공제사업 시·도별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27일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10개 회원 신협들이 신계약 실적 22억3천500만원을 달성, 이같은 성과를 냈다. 이는 애초 계약 목표액(14억3천400만원)을 156.6% 초과 달성한 것이다. 또

2008년 말 대비 38.7% 포인트, 전국 평균 대비 28.8% 포인트 증가한 액수다.

회원 조합 부문에서는 목포 광발신협이 목표 달성률 354.0%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목포신협은 331.5%, 목포 대성신협은 253.2%를 달성하여 각각 종합 3, 6위에 올랐다.

광주 두안, 강진, 광주 치과의사, 영광 굴비골 신

협 등은 자산규모 대비 실적에서 2위를 차지했다. 광주 문화, 순천중앙, 북동, 영광 할평, 완도 제일, 해남, 어룡, 빛고을, 무안남부, 북교, 임하 신협 등은 장려상을 받았다.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공제사업 실적 외에도 2009년 종합경영평가에서도 3년 연속 전국 1위가 확실시된다”며 “회원 신협들이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침체한 지역경기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성과를 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빛잔치 주식투자 5兆

올 들어서만 4,428억...개미들 손실 우려

주식 외상거래가 급증하면서 5조 원을 넘어섰다. 외상거래는 신용용자와 미수, 대주(貸株) 등을 말한다. 특히 외상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용자가 4조8천억원을 웃돌면서 사상 최고 수준에 육박한 상태다.

무엇보다 코스닥시장에서 신용용자 증가 속도가 빠르다. 각종 테마주(株)를 중심으로 코스닥지수가 랠리를 이어가자 ‘개미’들이 빛을 내서라

도 주식매수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긴축 우려에 증시가 단기조정을 받고 있어 테마주의 ‘거품’이 빠질 경우반대매로 투자자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들이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서 빌린 신용용자 잔액은 지난 25일 기준 4조

8천257억원으로 올해 들어 4천428억원(10.1%) 증가했다.

신용용자는 통상 90일간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방식이다. 15거래일 연속 증가하며 전고점인 작년 9월 말 4조8천792억원에 바짝 다가선 상태다.

지난 2007년 6월 7조원을 웃돌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미수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풀림이 큰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사상 최대규모에 육박한 셈이다. /연합뉴스

송기진(사진 오른쪽) 광주은행장이 27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메투 웰치 ING 은행 아시아담당 총괄본부장과 외화차입 서명식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위폐 34% 줄어

작년 광주·전남 293장 발견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견된 위조지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2009년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모두 293장으로 전년 444장에 비해 34.0%(151장) 감소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위조방지 기능이 강화된 새 은행권 발행 이후 위폐 발견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폐 종류별로는 5천원권이 56%(164장)로 가장 많았고 이어 1만원권 116장(39.6%), 1천원권 7장(2.4%), 5만원권 6장(2%) 등의 순이었다. 5천원권이 많은 것은 특정 번호의 위조지폐가 다량발견됐기 때문이다.

또 2006년 이후 발행된 새 은행권 위조지폐는 127장이 발견됐으며 권종별로는 5만원권 6장, 1만원권 98장, 5천원권 16장, 1천원권 7장이었다. 20장 이상 다량 발견된 위조지폐는 4종류 164장으로 전체의 56%에 달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중소기업에 외자 지원

光銀- ING은행과 금융협약

광주은행은 이번엔 차입한 자금을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 외화자금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송기진 행장은 “이번 외화 차입은 지역 중소기업체의 외화자금 수요를 적시에 지원하는데 의미가 크다”며 “이를 계기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ING은행과 광주은행이 상생 발전하는 동반자 관계를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은행은 이번엔 차입한 자금을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 외화자금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송기진 행장은 “이번 외화 차입은 지역 중소기업체의 외화자금 수요를 적시에 지원하는데 의미가 크다”며 “이를 계기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ING은행과 광주은행이 상생 발전하는 동반자 관계를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s) featuring a cartoon character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UPGRADE' furniture featuring a modern living room setup and the Iluorn logo.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ELISIA) featuring a child's room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branch in Gwangju.